한국간호연구학회지 제6권 제1호 2022년 3월 ISSN(Print) 2586-2057 · ISSN(Online) 2671-5686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6, No. 1, 67-77, March 2022 https://doi.org/10.34089/jknr.2022.6.1.67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1]조은희 · [2]황순정 · [3]김신희

[1]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2]전주비전대학교, 부교수 · [3]원광보건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es of New Nurses

Eun Hee, Jo[1] · Soon Jung, Hwang[2] · Shin Hee, Kim[3]

[1]Kunsan college, Assistant professor
[2]VISION College of Jeonju, Associate professor
[3]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level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among new nurses. **Methods :**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with 135 new nurses who graduated after a 4-year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Data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Results :** The variables affecting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were evidence-based practical education exper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new nurses'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wa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β =.32, p =.001), followed by nursing professionalism (β = .31, p = .001) and evidence-based practical education experience (β =.19, p =.018) which together explained their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up to 26.0%.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is essential for new nurses graduating from a 4-year colleg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and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to strengthen critical thinking tend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Competence, Thinking, Communication, Ability, Professionalism

교신저자 : Shin hee, Kim / (54538) 514, Iksan-daero,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Tel : +82-840-1423, Fax : +82-840-1319, E-mail : wondule@wu.ac.kr
접수일 : 2021.01.22 / 수정일 : 2022.03.02 / 게재확정일 : 2022.03.1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고도의 의료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관심과 정보 획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1]. 이에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최상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근거기반실무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1]. 근거기반실무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를 위한 의사결정 시 최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근거, 전문가의 임상경험과 비판적 판단,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고 통합하여 체계적인 근거를 기초로 실무에 사용함을 의미한다[2]. 이를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3].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임상현장에서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 이를 자신의 전문성과 환자의 선호도에 통합하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간호사 개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다르고 단계적으로 상당한 훈련과정이 필요하다[4]. 따라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간호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성향은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5].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정확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변화하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가 능숙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6]. 간호사가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능력을 개선시키고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환자간호의 질과 안전을 보장한다[7]. 따라서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8] 이외 의사소통능력[9]이 제시되고 있다. 간호는 환자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병원의 여러 직종들과 상호작용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10].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간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간호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사의 필수적인 능력으로[11],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간호의 질 개선을 위해 근거기반실무 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간호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12]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을 말한다[13].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로 하여금 직업적인 만족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향후, 간호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14]. 간호전문직관이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근거기반실무와도 관련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지만 아직까지 이들간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과 근거기반실무 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

근거기반실무는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간호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간호사가 평생 습득하고 배워 나가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체로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문제에 대해 비평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중요하다[15].

환자안전과 의료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간호의 질 개선을 위해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다. 하지만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과 다양한 변수들 중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사로서 최상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직 역량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차이를 확인한다.
-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300병상 이상 5개의 종합병원에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근무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 독립변수 13개(일반적 특성 10개, 독립변수 3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대상자 수는 131명이었다.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5명을 제외한 신규간호사 1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 [16]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요소인, '지적 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였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Hur [17]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의사소통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을 Lee와 Kim [18]이 간호학 전공 교수 1인,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 관리자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2개 문항인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는 역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 [17]가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2였고, Lee와 Kim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an, Kwon과 Ahn [13]이 개발하고 Han, Kim과 Yun [19]이 요인분석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4) 근거기반실무 역량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Upton과 Upton [20]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Evidence Based Practice Questionnaire (EBPQ)를 Lim 등[21]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Likert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고 태도가 긍정적이며 수행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Upton과 Upton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지식 .85, 태도 .79, 수행 .91)이었고, Lim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 (지식 .93, 태도 .64, 수행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지식 .94, 태도 .72, 수행 .8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6월 10일~2021년 11월 20일까지였으며, 간호부 부서장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받았다. 간호부의 협조를 받아서 간호부를 통해 24개월 미만의 경력을 구분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 배부하였고, 설문지는 자기 기입방식이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분~20분 정도였다. 설문에 응한 간호사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자들은 질병관리청의 인간대상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신규간호사들에게 연구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별도로 보관함을 마련하여 설문지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이 완료된 후 비밀보장을 위해 작성 후 즉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여 비밀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 설명문에는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유지가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역량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의 입력(enter)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4.48±1.68세 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122명(90.4%), 종교가 없는 사람이 93명(68.9%)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4명(84.4%)이었다. 근무경력은 평균 9±5.02개월이었으며 1년 미만이 88명(65.2%)이었고,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78명(57.8%), 상급종합병원이 57명(42.2%)이었다. 대상자가 근무하는 부서는 외과계병동이 54명(40.0%), 내과계병동 33명(24.4%), 특수파트가 26명(19.3%), 외래 등 기타가 22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실무 교육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ve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M±SD (range 0-5)	t/F(*p*) Scheffe	M±SD (range 0~5)	t/F(*p*) Scheffe	M±SD (range 0~5)	t/F(*p*) Scheffe	M±SD (range 0~7)	t/F(*p*) Scheffe
Age(year)	24.48±1.68(22~31)										
Gender	Female	122	(90.4)	3.48±0.30	-0.91	3.59±0.42	-0.76	3.56±0.43	2.51	4.25±0.74	-0.30
	male	13	(9.6)	3.40±0.22	(.366)	3.50±0.28	(.449)	3.25±0.37	(.013)	4.18±0.52	(.767)
Religion	Yes	42	(31.1)	3.51±0.31	0.94	3.62±0.38	0.75	3.57±0.37	0.66	4.20±0.73	-0.38
	No	93	(68.9)	3.45±0.29	(.349)	3.56±0.42	(.457)	3.51±0.46	(.514)	4.26±0.72	(.706)
Marital status	Unmarried	114	(84.4)	3.45±0.30	-2.14	3.59±0.42	0.72	3.52±0.45	-0.51	4.21±0.73	-1.11
	Married	21	(15.6)	3.57±0.22	(.039)	3.52±0.34	(.475)	3.57±0.32	(.612)	4.40±0.70	(.268)
Employment period(month)	< 12	88	(65.2)	3.47±0.30	-0.07	3.57±0.43	-0.48	3.54±0.46	0.53	4.32±0.68	1.82
	≥ 11	47	(34.8)	3.47±0.28	(.945)	3.60±0.44	(.635)	3.50±0.39	(.596)	4.09±0.78	(.071)
Hospital type	Certified tertiary hospital	57	(42.2)	3.49±0.32	0.69	3.64±0.45	1.54	3.55±0.50	0.46	4.36±0.72	1.66
	General hospital	78	(57.8)	3.46±0.27	(.489)	3.53±0.37	(.125)	3.52±0.39	(.648)	4.15±0.72	(.099)
Work department	Medical ward	33	(24.4)	3.42±0.33		3.66±0.48		3.56±0.45		4.20±0.82	
	Surgical ward	54	(40.0)	3.51±0.26	1.63	3.51±0.40	1.92	3.51±0.45	0.11	4.31±0.69	0.49
	Special part	26	(19.3)	3.53±0.34	(.185)	3.69±0.35	(.130)	3.53±0.51	(.956)	4.26±0.82	(.692)
	Others(outpatient, full-time, etc.)	22	(16.3)	3.38±0.26		3.51±0.35		3.53±0.27		4.10±0.55	
Evidence-based practice	Yes	92	(68.1)	3.47±0.27	-0.24	3.60±0.42	0.66	3.58±0.41	1.88	4.36±0.72	2.93
Educational experience	No	43	(31.9)	3.48±0.34	(.811)	3.54±0.39	(.513)	3.43±0.47	(.062)	3.98±0.67	(.004)
Research experience	Yes	51	(37.8)	3.50±0.28	1.00	3.62±0.39	0.99	3.57±0.41	0.90	4.41±0.63	2.11
	No	84	(62.2)	3.45±0.30	(.319)	3.55±0.42	(.322)	3.50±0.45	(.368)	4.14±0.76	(.037)
Rresearch necessity	Yes	98	(72.6)	3.51±0.29	2.23	3.59±0.43	0.49	3.56±0.42	1.38	4.29±0.74	1.37
	No	37	(27.4)	3.38±0.30	(.027)	3.55±0.37	(.623)	3.45±0.47	(.170)	4.10±0.67	(.174)

경험이 있다가 92명(68.1%), 연구경험이 없는 경우가 84명(62.2%)이었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8명(72.6%)으로 대다를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결혼 유무, 연구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t=2.23, p=.027).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t=2.51, p=.013).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과 연구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았으며(t=2.93, p=.004) 연구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았다(t=2.11, p=.037).

2.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 정도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7±.30점(5점 만점)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58±.41점(5점 만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52±.43,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평균 4.24±.72점(7점 만점)이었다.

3.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 간의 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의사소통능력(r=.54, p<.001), 간호전문직관(r=.45, p<.001), 근거기반실무 역량(r=.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전문직관(r=.59, p<.001)과 근거기반실무 역량(r=.24, p=.008)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전문직관은 근거기반실무 역량(r=.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135)

Variables	M±SD	Range	Cronbach' s α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7±0.30	2.75~4.20	.87
Communication ability	3.58±0.41	2.60~4.93	.82
Nursing professionalism	3.52±0.43	2.33~4.72	.84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4.24±0.72	1.96~6.92	.93

Table 3. Correlation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N=135)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Communicative ability	.54(<.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45(<.001)	.59(<.001)	1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39(<.001)	.24(.008)	.41(<.001)

4. 연구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과 연구경험을 더미 변수 처리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범위는 .65～.95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7～1.79로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Durbin Watson 지수 또한 2.12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잔차 분석결과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이었다. 즉 근거기반간호실무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β=.19, p=.018), 비판적 사고성향(β=.32, p=.001)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β=.31, p=.001)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아지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0%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9, 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평균 4.26점(7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22]의 연구의 평균 4.36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가 대상으로 학력은 학사이지만 Park 등[22]의 연구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꼭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8]. 이에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속적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 조성과 부서장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7점(5점 만점)으로 선행연구 Park 등[22]의 연구에서의 평균 3.7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Park 등[22]의 연구대상자는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최종학력에서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이 학사 졸업군

Table 4. Factor Influencing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of New Nurses (N=135)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0.34	0.67		0.51	.608	
Evidence-based practical experience(Yes)*	0.29	0.12	.19	2.40	.018	1.10
Research experience(Yes)*	0.14	0.12	.10	-1.24	.216	1.0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79	0.22	.32	3.54	.001	1.49
Communicative ability	-0.27	0.18	-.15	-1.53	.128	1.79
Nursing professionalism	0.53	0.16	.31	3.35	.001	1.63
R^2=.28, Adjusted R^2=.26, F=10.19, p<.001						

* Dummy variables(reference : Educational experience(No).

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학력은 학사로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3]. 이는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임상적 상황을 경험하고 의사결정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 효과적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실무현장에서 환자상태에 대해 주의깊고 정확한 평가를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능숙하고 다차원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다[6]. 따라서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임상간호수행능력이 발전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비판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 또한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력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간호근무환경과 인력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 신규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55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1년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 등[24]의 연구결과 평균 3.44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반영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과 및 비교과목이 확대 운영 및 개설되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과 훈련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52점(5점 만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 평균 3.51점, 3.50점[15, 25]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절의 전공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3]. 따라서 전공만족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공지식뿐 아니라 간호학에 대한 태도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과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근거기반실무 역량과 비판적 사고성향[1,3]과 의사소통능력[9]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전문직관을 바탕으로 숙련된 간호기술과 연구를 통해 창조성, 과학성, 정확성, 자율성 및 객관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26]. 이러한 간호활동은 근거기반실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질수록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 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13]이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6]. 따라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합리적 문제해결과 체계화된 간호학적 견해로 간호활동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신규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주어진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유의한 예측요인이라고 한 선행연구[8]를 뒷받침한다.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간호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침과 연구를 통하여 최상의 근거 찾는 근거기반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호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8].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간호관리자는 신규간호사가 간호현장에 적응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자극하고 촉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지만 간호전문직관이 근거기반간호실무 역량에 미치는 선행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전문성이 근거기반실무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27]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간호전문성은 간호사의 일상적인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여 간호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27]. 이러한 간호전문성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헌신과 간호사가 교육과 연구, 실습과 이론을 생성하며 이를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에 간호전문직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변수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 등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의 간호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근거기반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근거실무 역량이 높았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21]. 따라서 임상질문에 대해 최상의 근거를 찾아 환자의 근거기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미나, 학회 참석 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업을 이어가도록 적극지지해주는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의사소통능력과 근거기반실무 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신규간호사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안전과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실무 역량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관이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의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간호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이 근거기반간호실무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최상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근거기반실무 교육경험이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병원 및 간호조직 차원에서 근거기반간호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하고 긍정적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와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근거기반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연구 측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대학원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와 임상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 간호상황에서 비판적 사고와 자부심을 갖고 간호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교육 측면에서 체계적인 근거기반 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Jang IS, Park MH. Knowledge management, beliefs, and competence on evidence-based practice,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6;28(1):83-94. http://dx.doi.org/10.7475/kjan.2016.28.1.83
2. Park MH.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vidence

based nursing. 2nd ed. Seoul: Koonja; 2006.
3. Lee GA, Shin SH, Ko SJ. Influenc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e Managers' Transformation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 on Nurses' Competency with Evidence Based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0;26 (4):305-315.
4. Riley JK, Hill AN, Krause LB, Leach LB, Lowe TJ. Examining nurses' attitudes regarding the value, role, interest, and experience in research in an acute care hospital.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2011;27(6):272-279. http://dx.doi.org/10.1097/NND.0b013e3182374bdc
5. Kim YS, Kim JM, Park MM. Factors influencing competency in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2):143-153.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2.143
6. Rogal SM, Young J. Exploring critical thinking in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A pilot study.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008;39 (1):28-33. https://doi.org/10.3928/00220124-20080101-08
7. Fero LJ, Witsberger CM, Wesmiller SW, Zullo TG, Hoffman LA.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new graduate and experienc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1):139-148.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8.04834.x
8. Riley JK, Hill AN, Krause LB, Leach LB, Lowe TJ. Examining nurses' attitudes regarding the value, role, interest, and experience in research in an acute care hospital.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2011;27(6):272-279. http://dx.doi.org/10.1097/NND.0b013e3182374bdc
9. Ilic D. Assessing competency in evidence based practic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current tools in practice. BMC Medical Education. 2009;9(1):53. http://dx.doi.org/10.1186/1472-6920-9-53
10. Brown JB, Lewis L, Ellis K, Stewart M., Freeman TR, Kasperski MJ. Mechanisms for communicating within primary health careteams. Can Fam Physician. 2009;55(12):1216-1222.
11. Ahn YH, Kweon EK, Choi ES, Gu EJ. Effects of competency level in communication on professional competence of public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1;25(2):233-243. https://doi.org/10.5932/JKPHN.2011.25.2.233
12. Hallin K, Danielson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1(1):62-70.
13.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14. Lee MA, Kang SJ, Hyun HS.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9;25(4):317-328.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4.317
15. Yi JE, Park MH. Nurses'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s &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1;23(3):255-266.
16. Yoon 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2004. p. 1-64.
17.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18. Lee HS, Kim JK.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 16(4):488-496.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4.488

19.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20. Upton D, Upton P. Knowledge and use of evidence-based practice by allied health and health science professionals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Allied Health. 2006;35:127-133.
21. Lim KC, Park KO, Kwon JS, Jeong JS, Choe MA, Kim JH, et al. Registered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about evidence-based practice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1;17(3):375-387.
22. Park AN, Chung KH, Kim WG.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6;22(1):1-10.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1.1
23. Park JA, Kim BJ.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 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 Journal of Korean Acad emy of Nursing. 2009;39(6): 840-85.
24. Son HM, Sung K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in the medical team and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 (12):300-309.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00
25. Choi SY, Lee MA. Effects of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intent to stay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3):234-244.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3.234
26. Lee KM, Kim SH. Professionalism of the Nurs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9;9(9):94-107.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094
27. Brigita SS. Simona HT, Katja P. Professional values and competencies as explanatory factors for the use of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7;73(8): 1910-1923. https://doi.org/10.1111/jan.13280